

평화를 위한 전쟁박물관이라는 역설

-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염운옥*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영국 제국전쟁박물관 중에서 대표적인 두 곳,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과 맨체스터관의 전시를 분석했다. 1차대전 중 반전 여론을 잠재우고 전쟁 동원과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국전쟁박물관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아우라를 입히는 대신,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사람들의 일상에 끼친 영향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세기의 모든 전쟁에 ‘목격자’가 되어주기를 관람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제국전쟁박물관은 전쟁에 대한 인습적·규범적 교훈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둔 평화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제국전쟁박물관의 전시는 전쟁에 관한 군사주의적·애국주의적 서사를 피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병사들의 재현에서 피부색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무기 산업과 국가의 책임은 비판하지 않고 난민에게 공감하자는 전시는 위선적이거나 공허할 수 있다. 전쟁의 인간적 고통 앞에 공감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 공감에 선택의 요소가 부여된다면 선택적 공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전쟁박물관 같은 전쟁박물관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에는 쉽게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재단할 수 없는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쟁박물관,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 1차대전, 평화, 공감

*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woyeom@hanmail.net

I. 서론: 전쟁박물관이라는 역설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외면하고 주장하는 평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전쟁박물관이 전쟁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쟁을 통한 평화 말하기의 (불)가능성을 논하는 데 중요하다. 어떤 전쟁박물관도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자 필요악으로서 전쟁이 정당하다고 내세운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체로 전쟁박물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당연한 정치 공동체로 전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을 재현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평화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전쟁박물관에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지 않은가 의혹을 품게 된다. 평화를 지키는 수단으로 전쟁을 재현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이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인 힘이라고 찬양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일기도 한다. 전쟁 무기의 발달과정을 늘어놓고 무기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식으로 성능과 효용을 칭송하는 전시 앞에 서면, 무기에 의한 폭력을 당연시하는 관점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류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는 전쟁을 주제로 삼는 박물관이 어디까지 참상과 폭력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을지 태생적 한계를 재차 확인하고 회의와 실망에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쟁박물관은 앞에서는 폭력을 비판한다면서 뒤로 은밀하게 폭력을 찬양하는 이율배반적 장소가 아닌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을 직시해야 한다는 전쟁박물관들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애초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면서 내세우는 거짓 목적이 아닌가?

역설과 모순 위에 존재하는 전쟁박물관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영국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s)의 사례에 주목한다.¹⁾ 현

1) 제국전쟁박물관의 기본 목적, 조직 편제, 이사회, 운영 원칙, 전시 운영과 개편, 관람객 통계 등에 관한 본 논문의 서술은 2018년 8월 24일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에서 필자가 소속된 조사팀이 진행한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제국전쟁박물관 측 인터뷰이는 내러티브·컨텐츠 담당 차장(Assistant Director of Narrative and Content)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 전시·해석팀장(Head of Exhibitions and Interpretation) 라파엘 채니(Raphaël Chanay),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담당 차장(Assistant Director of Marketing and Communication) 피트 오스틴(Pete Austin) 등 3

재 영국에는 전쟁과 갈등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 수백 곳 이상 존재한다. 몇 곳만 예로 들어 보아도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 기념 박물관(1066 Battle of Hastings Museum)부터 켈비돈 해치 핵전쟁 대비 벙커 박물관(Kelvedon Hatch Secret Nuclear Bunker), 2차 대전 때 유일하게 나치 독일에 점령됐던 채널 아일랜드 건지 점령박물관(Guernsey German Occupation Museum)²⁾과 저지 터널박물관(Jersey War Tunnel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군 관련 박물관만 해도 공군박물관이 60곳, 부대와 연대 박물관이 132곳 운영되고 있다 (Candlin, Butler, and Watts 2022, 67). 하지만 규모와 위상 면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제국전쟁박물관을 따라올 만한 시설은 없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안정적 재원 확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체계적 수집과 아카이브 운영, 상설 전시와 특별전시의 기획과 실행, 정기적인 상설전시 개편 등 안정적·체계적 운영이라는 면에서 여타 박물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국내외에 발휘하고 있다.

제국전쟁박물관은 1, 2차대전부터 현대 분쟁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영연방이 관련된 주요 전쟁과 분쟁을 수집·전시하는 곳으로 박물관(museum)이자 추모관(memorial)이며, 문서고(archive)로서 라키비움(larchiveum)³⁾의 성격을 갖는 박물관이다. ‘군사박물관(military museum)’⁴⁾이 아니라 ‘전쟁박물관(war museum)’으로서 영웅주의적이거나 군사주의적 관점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유념하며, 시민 경험(experiences)의 총체로서 전쟁을 재현하는 것이 제

명이었다. 인터뷰 조사 전문은 도면희 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12), 309-335쪽에서 읽을 수 있다.

- 2) 채널 아일랜드(The Channel Islands)는 도버 해협에 위치한 지역으로 저지(Jersey), 건지(Guernsey), 엘더니(Alderney), 사크(Sark) 등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에 속하지 않는 왕령지(Crown Dependency)다. 채널 아일랜드 나치 점령기 일상과 기억, 박물관화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염운옥. 2010. “채널 아일랜드와 나치 점령의 기억.” 『역사와문화』 20호. 110-137; 염운옥. 2010. “나치 점령기 채널 아일랜드의 일상.” 『이화사학연구』 41호. 317-346.
- 3)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수집·소장·전시라는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최근 국내외의 많은 박물관이 라키비움을 지향하고 있다.
- 4) 국방부는 산하에 육군박물관(National Army Museum), 해군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Royal Navy), 공군박물관(Royal Air Force Museum) 등 별도의 군사박물관을 두고 있다.

국전쟁박물관 전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국전쟁박물관의 법적 지위는 자선단체법(charity law)을 근거로 설립된 등록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다.⁵⁾ 영국에서 모든 자선단체 운영의 책임은 이사회(board of trustees)에 있다. 제국전쟁박물관 역시 이사회가 박물관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⁶⁾ 제국전쟁박물관 이사회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의 산하에 놓이며 동부서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박물관의 사업에 실질적인 조언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국방부가 아니라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산하에 있다는 점은 제국전쟁박물관이 불필요한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법적 지위의 안정성은 ‘군사박물관’이 아니라 ‘전쟁박물관’이라는 제국전쟁박물관의 기본 성격을 확보·유지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국전쟁박물관은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다섯 개 박물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런던관(Imperial War Museum London)을 비롯해 처칠 전시 지휘실(Churchill War Rooms), 맨체스터관(Imperial War Museum North), 벨파스트호 전상 전시관(HMS Belfast), 덕스퍼드 공군 전시관(Imperial War Museum Duxford) 등이 제국전쟁박물관에 포함된다. 조직 편제상 런던관이 본원에 해당하지만 다섯 개의 박물관은 설립 시기와 전시내용도 다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현대 분쟁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런던관과 맨체스터관 두 곳을 중심으로 건립 과정, 전시 방식, 전시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국전쟁박물관의 성격을 파

5) 영국에서 자선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며, 전국에 약 16만 개의 자선단체가 있다. 옥스팜(Oxfam)이나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같은 NGO뿐만 아니라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국립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등 주요 국립 박물관들도 모두 등록자선단체다.

6) 2023년 현재 이사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의 임명은 수상, 외무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등이 관여한다. 고등판무관은 52개 영연방 회원국의 대사급 외교관을 말한다. 현 이사진에는 HSBC 은행장, 국방부 고위 관료, 퇴역 장성, 미디어 전문가, 전 BBC 프로듀서, 음악감독, 로열아카데미 예술감독, 디지털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악해보고, 나아가 전쟁박물관에서 전쟁과 평화를 재현한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총력전의 산물, 제국전쟁박물관의 건립

‘국립’ 전쟁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상은 1차대전 중에 시작되었다. 1917년 3월 5일 전시내각은 총력전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박물관 건립을 결정하고 전쟁박물관 설립 위원회를 설치했다. 건립 결정 당시의 명칭은 국립전쟁박물관(National War Museum)이었지만, 1918년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으로 바뀌었다. 백인자치령들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자치령과 식민지인의 전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개칭이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백인자치령의 적극적인 참전 배후에는 이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영국계 주민의 모국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이 있었다. 백인성(whiteness)을 바탕으로 한 영국성(Britishness), 영제국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영국 정부는 전시제국회의와 전시제국내각 등을 운영하며 백인자치령의 협력을 끌어냈다(이영석 2022, 41-42).

영제국 자치령과 식민지의 협력 도모라는 실용적 목적 이외에도 제국전쟁박물관이 왜 ‘국립’이어야 하는지가 설명될 필요가 있었다. 전쟁 관련 유물의 수집과 소장은 왕립무기고나 각 연대 소속 무기고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각 지역 박물관에서도 관련 유물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도의 전쟁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당화 논리가 필요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총력전(total war)이었던 1차대전은 전방과 후방의 경계가 없어진 전쟁, 첨단 무기를 사용한 대규모 인명 살상이 현실이 되어 버린 전쟁으로 교전국 모두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Principles of War)』에서 전쟁의 일차적 목적은 적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손상된 명예의 회복이나 왕위 계승, 영토 확장 같은 전쟁의 목표는 적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는 일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적이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다(클라우제비츠

1998, 59). 1차대전은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물자를 추모하고 적의 파괴를 고발하는 전쟁 유물을 수집·전시·교육하는 국립 기관의 설립은 총력전 수행을 위한 국민 동원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다.

총력전의 참극 앞에 점차 표출되기 시작한 반전의 기운도 국립 전쟁박물관 발의를 재촉하는 요인이었다. 반전선언(反戰宣言)의 유명한 사례는 지그프리트 사순(Siegfried Sassoon)의 선언이었다. 참전 시인 사순은 1916년 6월에 직속상관의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 한 병사의 선언(Finished with the War: A Soldier's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사순은 선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군 당국에 반대한다. 이 전쟁은 전쟁을 끝낼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고의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과 해방을 위해 싸우려고 종군한 이 전쟁은 이제 침략과 정복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사순의 반전선언은 1917년 7월 27일 자 『브래드퍼드 파이어니어(Bradford Pioneer)』지에 실렸고, 1917년 7월 30일 하원에서도 낭독됐다. 사순은 이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기 직전까지 갔으나 지인들의 노력으로 겨우 무마되었다(Ward 1997, 29).

사순과 같은 반전의 목소리가 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서부전선 참호전의 비참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면서 참호 속 진흙탕에 빠진 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길어져 가는 전쟁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불만은 총력전 수행에 필요한 자발적 동의와 헌신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특히 1916년 7월 1일 프랑스 솜(Somme) 전투에서 단 하루 동안 57,000명의 영국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이런 끔찍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박물관 건립에 예산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전쟁이라는 승인받은 조직적 살인, 문명의 자살과 광기를 기념하는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건립에 관한 의회 토론에서 제기되기도 했다(Malvern 2000, 182).

의심하는 대중을 설득하고 전쟁 동원과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물자에 대한 추모와 보존만으로는 부족했다. 전쟁 무기와 전리품, 선전 포스터, 신문과 잡지 보도물 등 전쟁과 관련해 생산된 다양한 유물과 기록물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전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장차 평화가 도래했을 때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의 소임 또한 국립 전쟁박물관 건립에서 정부가 염두에 둔 목적이었다. 제국전쟁박물관 초대 관장이 된 콘웨이경(Lord Conway of Allington)은 박물관 건립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화가 회복되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월이 흘러 위대한 날들의 기억은 지나가고 그들이 겪었던 모험은 희미해질 것이다. 이 박물관의 목적은 병사들이 동지들, 친구들, 자녀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들고 싸웠던 거대한 총과 무기, 입었던 군복, 전쟁 미술, 모형 군함,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참호와 대피소 모형을 박물관에서 보면서 과거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곁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이 박물관은 모두가 바라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한마음으로 협력해 성취하자(National War Museum, (B72 7 0) 24/4/17: IWM C/F A1/2. Kavanagh 1988, 83).

의회 결의에 앞서 설치된 박물관 건립위원회는 해군, 육군, 공군, 군수품, 백인자치령, 문서관, 여성 등 7개 소위원회로 나눠 전시를 위한 유물 수집을 먼저 시작했다. 수집 담당 책임자로는 캐나다의 베클레스 윌슨(Beckles Willson) 소령이 임명됐다. 윌슨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서부전선, 팔레스타인 등지로 파견되어 전리품과 관련 기록을 수집했다. 과거 유물이 아닌 당대 유물을 그것도 전쟁 중에 수집한다는 임무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윌슨이 정리한 유물 목록에는 대포, 총, 군수품 등의 유래와 출처, 관련 전투와 사건 등이 때로는 한 줄로 짧게, 때로는 한 단락 정도로 길게 서술되어 있다. 일례로 벨기에 플랑드르 이프르 동쪽의 작은 마을 후거(Hooge)에서 입수한 독일제 자전거에는 “1916년 6월 22일 새벽, 후거 인근 독일군 참호 인근에서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전거 탄 독일 병사였다. 그 병사는 행복하려는 듯 아군 쪽으로 왔는데 자전거 방향을 바꾸다가 참호 구멍에 처박히고 말았다(Saunders 2004, 38)”라는 텍스트 설명을 붙였다. 윌슨이 솜 전투에서 수집한 독일제 소총(Gewehr 98)에는 “웹(R. H. Webb) 대위가 독일군 장교와 육탄전을 벌이다가 자신의 총은 잃어버리고 상대방로부터 빼앗은 총(Imperial War Museum, FIR 7100)”이라고 썼다.

윌슨의 유물 수집은 군사적 무기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유형별 수집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상징성과 화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물을 모은다는 원칙을 세우고 따랐다. 전투를 직접 경험한 병사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거나,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함께 수행한 보통 사람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물건과 기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건립위원회는 전장에서 귀환한 병사들의 사진, 일기, 개인물품, 기념품 등을 기증받는다든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Cornish 2004, 37-39). 왕립무기고 큐레이터 출신으로 제국전쟁박물관의 첫 큐레이터로 임명된 찰스 폴크스(Charles Ffoulkes)는 지나치게 사소한 개인적 기념품까지 수집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시민 개인의 전쟁에 대한 공헌을 기록하는 것이 제국전쟁박물관의 목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Cornish 2004, 44). 제국전쟁박물관 건립 초기의 유물 수집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은 이 박물관이 자발과 동의에 의존하는 총력전 수행의 일부로 기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새 박물관이 들어설 장소는 시드넘의 수정궁(Crystal Palace)⁷⁾이 되었다. 박물관이지만 추모관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고 내부에 추모관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충분한 건립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해 수정궁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정궁은 1851년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 대박람회(The Great Exhibition)가 열렸던 곳이었다. 개관식은 종전 이후인 1920년 6월 9일에 거행되었고, 개관 당시 전시는 해군, 육군, 군수품, 전리품, 기록, 여성의 역할 등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선보였다. 국왕 조지 5세의 개관식 연설은 제국전쟁박물관이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희생의 숭고함을 전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Malvern 2000, 185).

철골과 유리를 재료로 박람회 용도로 건축된 수정궁은 사실 박물관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었다. 전시실 내부의 기온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수축·팽창하면서 뒤틀리고 일부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었고, 유리 천장과 벽에 생긴 균열 사이로 비가 새어들기도 했다. 육중한 탱크와 대포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부실한 바닥에 보강재를 덧대야만 했다. 적절한 구획 없이 넓게 뚫린 공간이라서 소형 유물은 유실되거나 도난당할 위험마저 있었

7) 수정궁은 1851년 대박람회 당시에 하이드 파크에 건설되었다가 1854년 시드넘으로 이전했다. 수정궁은 1936년 화재로 소실됐다.

다. 실제로 전리품이 도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Cornish 2004, 42).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여러모로 부적합했던 수정궁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선 1924년에 사우스켄싱턴 박물관 지구의 제국연구소(Imperial Institute)로 옮겼다가, 1936년 템스강 남쪽 서터크 램버스 지구의 현재 런던관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원래 베스렘 정신병원(Bethlem Hospital)이 있던 자리로 1920년대 병원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공간을 박물관 용도로 개조한 것이다. 베스렘 정신병원으로의 이전 계획은 1930년 초부터 추진됐지만,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다. 램버스는 사우스켄싱턴과는 대조적인 빈민가였고 병원 부지를 서터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웨이 경은 1932년 11월 30일 상원에서 베스렘 정신병원은 “주랑현관(portico)과 거대한 돔을 갖춘 훌륭한 건물이다. 양쪽에는 정신병원 환자들의 입원실로 쓰던 부속 건물도 두 동 있다. 이 특별한 건물은 우리 박물관의 소장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하다(Cooke and Jenkins 2001, 387)”며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인구가 밀집한 빈곤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면 노동자 교육과 오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견해도 램버스로의 박물관 이전에 힘을 보탰다(Steven Cooke and Lloyd Jenkins 2001, 387). 이전 이후 1930년대 제국전쟁박물관은 영국박물관, 국립미술관, 테이트 미술관보다 관람객 수가 많은 인기 박물관의 지위를 누렸다(Malvern 2000, 202). 총력전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제국전쟁박물관은 전후 영국민들이 즐겨 찾는 박물관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Ⅲ.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전시분석

1.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의 상설전시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유물은 전면 출입구에 놓인 15인치 쿨엘리자베스 함포이다. 이 함포는 1차대전 갈리폴리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것이다. 6층 건물의 출입구로 들어서면 천장까지 시원하게 뚫린 아트트리움에 지상무기와 공중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바닥에는 형체를 알

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지프와 포탄이 놓여 있고, 공중에 매달린 여러 대의 폭격기는 금방이라도 머리 위에 내리꽂힐 듯하다. <표 1>과 같은 런던관 전시는 2014년 전시 개편의 결과이다.⁸⁾

〈표 1〉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전시 구성

1층	1차대전 전시실, 전쟁의 증거들
2층	전환점 (1934-1945), 전시의 가족, 전쟁 미술
3층	평화와 안전(1945-2014), 첩보전
4층	특별전, 홀로코스트 전시
5층	홀로코스트 전시 (계속)
6층	에쉬크로프트 경(Lord Ashcroft) 전시실, 특별전시

1차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박물관 측은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리모델링과 전시 개편을 단행했다. 개관 직후와 전간기, 2차대전 직후까지는 인기 박물관이었으나 전후 평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상설전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 되었다. 2014년 전시 개편은 방문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결과적으로 성공이었다. 런던관의 방문객 수는 전시 개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만이었던 방문객은 2014년 280만으로 늘었고, 2015~2017년 동안 240만~250만 명을 유지했다.⁹⁾

2014년 전시 개편에는 데이비드 레이놀즈(David Reynolds), 휴 스트레천(Hew Strachan), 마이클 벌레이(Michael Burleigh) 등 군사사와 현대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리모델링과 전시 개편의 필요성은 2014년이 1차대전 개전 100주년이라는 점 이외에도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로부터 제기되었다. 1차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수병 클로드 출스(Claude Choules, 1901~2011)가 2011년 5월 5일에 사망함으로써 1차대전 참전 병사는 이제 한 명도 남김없이 세상을 떠났다. 참전군인의 죽음에 따라 매개를 거

8)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은 2018년부터 홀로코스트관과 2차대전관 상설전시 개편을 진행했고, 2022년 말 새 전시를 오픈했다. 아쉽게도 2022년 새로 개편된 전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9) 비교를 위해 제시하면 영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의 연간 관람객은 약 700만 명이다.

치지 않은 당사자의 직접적 전쟁 기억도 사라졌다. 죽은 병사의 편지, 엽서, 일기, 회고록, 그림, 사진 등에 나타난 개인사에 중점을 두는 전시에는 다음 세대에 직접 경험자들의 기억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2014년 7월 19일에 런던관이 재개관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참호 체험관이 없어진 것이었다. 기존 상설전시에서 전시실 가운데 있던 참호 체험관은 실물 크기의 참호를 짓고, 참호 안의 병사들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하고, 무전 타전 소리와 포탄 소리가 들리게 하는 체험 전시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새 전시는 이 참호 체험관을 없애고, 그 대신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안쪽 벽에 실제 참호 속 병사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2014년 전시 개편을 보도한 어느 신문 기사는 모험과 판타지가 살아있는 충천연색 어린이용 전시에서 점잖고 절제된 회색빛 성인용 전시로 변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Sooke 2014).

전체적으로 볼 때,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상설전시는 지나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서사를 피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찬양과 영웅화를 경계하면서 전쟁의 경과와 참상을 보여주고, 전쟁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 끼친 영향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1, 2차대전은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전투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쟁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두의 전쟁 경험을 중요하게 전시하고 있다. 다음 소절에서 상설전시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무기를 어떻게 전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계를 짚어보기 위해 식민지 병사의 재현에 주목한다.

2. 박물관으로 간 무기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전시의 특징은 유물 중심의 전시라는 점이다. 역사박물관에서 유물이 전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전쟁을 주제로 한 박물관의 주된 유물인 무기는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유물이다. 자칫 무기가 구현하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앞세우게 되면 그 무기가 실전에 배치됐을 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진실을 뒷전으로 돌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런던관 출입구에 놓인 갈리폴리 전투에서 사용된 함포,

넓은 아트리움을 가득 채운 무기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시실 바닥에 미사일, 대포, 장갑차, 자동차가 놓여 있고 전투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지상에는 지상무기, 공중에는 공중무기가 배치되어 있다. 아트리움의 중앙부를 ㄷ자로 둘러싸고 각 층의 전시실이 6층까지 배치되어 있는데, 각 층 전시실 복도에서 아트리움을 향해 반쯤 걸쳐져 있는 형태로 무기들이 돌출되어 있다. 전시실과 복도의 전투기, 탱크, 전함, 자동차는 만져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어 관람자는 무기를 통해 전쟁을 간접 체험하게 된다. 지상무기는 지상전의 간접 체험, 전투기는 공중전의 간접 체험인 셈이다. 이런 무기의 전시 방식은 입체감과 긴박감을 느끼게 한다. 아트리움에 들어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전투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넓은 아트리움이 좁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무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무기가 인간의 생명을 겨누고 있다는 감각적 효과를 노린 전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전시된 무기들이 모두 실제 사용된 무기라는 점이다. 무기의 전시 자체를 규범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과 무기의 전시를 통해 말하는 바를 문제 삼아야 한다. 런던관 아트리움에 전시된 무기는 미래 전쟁에 대비해 개발된 첨단 신무기가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 영국이 관여한 전쟁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리는 상처가 나 있고 전투기도 한쪽 날개가 찌그러져 있다. 사용된 무기, 파괴된 무기, 해체된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무기 사용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신무기의 발달과정, 최첨단 무기의 성능을 과시하는 전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용된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은 전쟁박물관에서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 무기가 부서지면 사람도 같이 부서진다. 손상과 함께 전시되는 무기는 과학기술의 집약체라든가 미래 신기술의 총아라든가 인명 살상이 소거된 물체로 무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됐을 때 발생하는 비참한 결과를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아트리움 전시를 ‘전쟁의 증거들(Witnesses to War)’이라 붙인 것도 손상된 무기와 함께 무기로 인해 파괴된 인명을 상기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런 방식의 무기 전시는 제국전쟁 박물관 런던관과 맨체스터관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전시품 중에는 현대 세계의 테러리즘에 대해 영국이 취하는 미묘한 입장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다. 아트리움 한가운데 전시된 형체를 알아보

기 힘든 물체는 이라크 전쟁이 4년째로 접어들었던 2007년 3월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 중심가 무타나비 서적 시장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테러로 파괴된 자동차이다. 이 폭발로 3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했다. 파괴된 자동차는 터너상을 받은 영국 미술가 제러미 델러(Jeremy Deller)가 사비로 사들여 자신의 순회 전시에 선보였던 것을 2010년 제국전쟁박물관에서 구매한 것이다(Bagdad Car. Imperial War Museum 4907.20.1).

왜 이라크전쟁에서 파괴된 자동차일까? 전시된 지프는 자살폭탄테러에 희생된 민간차량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자살 폭탄 테러로 파괴된 차량을 전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런 전시 방식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책임을 이슬람권에게만 돌리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테러와 대항 테러의 악순환에서 이슬람권도 서구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이러한 맥락을 놓치게 하고, 무슬림을 악마화할 우려가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테러로 인해 파괴된 자동차라는 전시품이 테러의 세계화와 세계적 연루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보다는 관람자에게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관습적·도식적으로 연결해버리는 효과를 내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3. 식민지 병사들의 전쟁

1차대전 전시실은 제국전쟁박물관의 태생과 관련되며 2014년 전시 개편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으로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총력전이 자 세계대전으로서 1차대전에는 영제국 식민지와 자치령에서 병사들이 동원되었다. 영제국을 지킨 병사들은 인종도 군복도 매우 다양했다. 예컨대 백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작된 여러 종류의 포스터는 런던관에 수집·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적극적인 선전의 결과 415,000명이 자원입대했는데 이는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수였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국가도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차대전 이후 전쟁 협력의 대가로 자치령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했고, 영국에 대해 발언권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 1차대전 전시를 조금만 살펴보면 영제국

참전 병사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파하기 어렵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백인자치령의 전쟁 협력에 관해서는 많은 공간을 할애해 상세하게 전시하고 있는 반면, 식민지인의 동원과 참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전시 개편 이전에는 인도군이나 서인도제도의 병사들에 대한 전시는 아예 없었다고 한다. 전시 개편 이후 추가된 식민지 병사에 관한 전시 유물도 수량이나 비중 면에서 빈약한 수준이다. 도서관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에 쓰던 도서 색인용 목록 카드 상자처럼 생긴 함에 사진을 여러 장 겹쳐 놓은 것이 전부다. 한 장씩 넘겨볼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사진 크기도 작고 해상도도 낮고 텍스트 설명도 소략하다. 식민지인이 겪은 전쟁이 전시의 주제로까지 다뤄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인도계나 카리브해계 영국인 커뮤니티에서 박물관 자문을 했을 때 왜 우리의 전쟁 경험은 전시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이후 조금씩 의견 수렴과 자문을 거쳐 전시를 보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 통념에서 1차대전은 철저하게 ‘백인의 전쟁’으로 인식됐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백인자치령의 공헌은 널리 인정됐지만, 식민지인에 대해서는 달랐다. 식민지 병사들은 종전 축하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1915년 10월에 창설된 서인도제도연대(the British West Indies Regiment)는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바하마 등에서 자원한 병사들로 12개 대대 15,200명 규모로 편성되었다. 서인도연대는 영국 육군의 일원으로 1915년 11월 영국에 도착해 각지로 파견됐다(Smith 2014, 50). 하지만 1919년 런던에서 거행된 종전 기념 퍼레이드에 이들 카리브 출신 흑인 병사들의 행진 참여는 허락되지 않았다. 식민지 흑인 병사는 제국의 신민으로서 제국의 부름에 응했지만, 전쟁 종식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할 자격은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Cooke and Lloyd Jenkins 2001, 385).

식민지 병사의 죽음도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몰자의 이름을 한 명씩 밝혀 추모해야 한다는 제국묘지위원회(Imperial War Graves Commission)¹⁰⁾의 원칙은 서부전선의 유럽인 묘지와 유럽 전장 묘지

10) 1, 2차대전 전몰자 유해 발굴과 묘지, 기념물 관리 위원회로 6개국 참여하는 정부 간 기구로 1920년 설립됐다. 1960년 이후에는 영연방묘지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에서만 지켜졌고, 식민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인도, 파키스탄, 서인도 등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묘지는 무명용사 기념비 형식이 대부분일 뿐이었다. 1914년 가을에만 해도 토고랜드, 카메룬, 독일령 동아프리카, 독일령 사모아에서 전투가 있었고,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포클랜드제도에서 상륙작전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작전이 수행됐고 다수의 전몰자가 발생했다(Barrett 2007, 452). 바스라에 건립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망한 인도군단 병사 35,000명을 기리는 추모비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연대나 서아프리카 국경수비대 전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제국묘지위원회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백인 전우와 똑같은 묘비를 세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원주민은 묘비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며 장례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무덤에 가족이 찾아오지도 않을 것이라는 차별과 편견에 가득 찬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다(Barrett 2014, 80-81).

제국전쟁박물관이라는 명칭만으로 보면 제국전쟁박물관이 영국 본국뿐만 아니라 1차대전에 참전한 자치령과 식민지의 공헌 모두에 대해 포용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제국전쟁박물관 전시에서 1차대전에 동원된 식민지 병사의 삶과 죽음의 기록이 이제 조금씩 발굴되고 부가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한계가 아닐 수 없다.

IV.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 전시분석

1.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의 건립과 상설전시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은 2002년 맨체스터 스트랫퍼드에 새로 건립된 박물관이다. 맨체스터관의 방문객은 2017년 기준으로 약 25만 명 정도이다. 맨체스터는 인구는 55만 정도로 전국 9위에 불과하지만 정치적·경제적 위상 면에서는 버밍엄과 2, 3위를 다투는 도시다. 런던에서 내셔널 레일 기차로 2시간 반이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맨체스터관의 관람객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그만큼 이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

Commission)가 되었다.

한다. 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구 셸퍼드 부두 지역으로 박물관은 ‘미디어 시티 유케이(Media City UK)’라는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의 일부로 건립되었다. 맨체스터는 ‘미디어 시티’라는 도시재생의 이름에 걸맞게 방송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채널4(Channel 4) 방송사 일부가 이곳으로 옮겨왔고, BBC 본사는 2024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물관이 들어선 셸퍼드 부두는 2차대전 중이었던 1940년 8월에서 12월까지 이어진 독일군의 맨체스터 폭격 당시 주요 피해 지역이었다. 셸퍼드 부두 폭격에서만 215명의 사망자와 9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약 8,0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맨체스터관의 설계는 베를린 유대인박물관(Jüdisches Museum Berlin)을 설계한 현대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맡았다. 9/11 추모박물관(the 9/11 Memorial & Museum)을 설계하기도 한 리베스킨트는 독특한 외관과 공간 구성으로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불린다. 맨체스터관도 매우 독특한 외관을 하고 있다.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클래드 피복은 전쟁의 본질과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세 덩어리로 분리되는 구조는 충돌로 피해를 입은 상상 속 지구의 흙, 바람, 물을 각기 상징한다고 한다. 베스렘 정신병원 건물을 재활용한 런던관과는 달리 처음부터 박물관 용도로 설계됐기 때문에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도가 훨씬 높다. 주 출입구는 1층(ground level)에 있고 전시실은 2층(level one) 한 개 층에 모든 전시를 펼쳐놓은 형태이다. 네모반듯한 사각형을 거부하는 이런 공간 연출은 다른 박물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리베스킨트 건축의 특징이다.¹¹⁾ <그림 1>에서 보듯이 2층 주 전시실은 삼각형과 사각형을 여러 개 겹쳐 놓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11) 리베스킨트의 건축학적 특징이 가장 잘 구현된 박물관은 2001년 건립된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이다.

〈그림 1〉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의 전시 공간 구성



2층 전시실 중앙 홀에는 1차대전 당시 영국군에 의한 첫 폭격 때 사용됐던 야전포, 9/11 테러 후 그라운드 제로에서 회수된 7m 길이의 강철판 같은 대형 유물부터 야전에서 쓰던 나침반과 축음기 부품, 면도칼 같은 도구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는 크게 타임라인(Timeline), 사일로(Silos), 타임 스택(Time Stacks), 빅픽처쇼(Big Picture Show), 액티브 스테이션(Active Stations), 등 다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타임라인 전시는 시대구분 순서를 따라 ‘도입부, 1914-1918, 1919-1938, 1939-1945, 1946-1990, 1990-현재’의 여섯 시기로 나누고, 각 시대에 각기 다른 색을 배치해 공간을 구획했다. 전시의 전체적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별 주요 사건과 키워드를 벽면에 큰 글씨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타임라인 벽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시대 순서대로 관람하게 된다.

‘사일로’는 미사일 격납고 모양으로 생긴 별도의 공간으로 타임라인을 따라 최소한으로 간략화된 전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 경험, 여성과 전쟁, 전쟁의 인상, 제국 영연방과 전쟁, 과학기술과 전쟁, 전쟁의 유산 등 모두 6개의 사일로에는 시대별 전시에 모두 담지 못한 내용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다. 사일로 내부의 벽에 설명을 써놓기도 하고, 서랍을 열면 지도나 사료가 들어 있기도 하다. 타임 스택은 군복, 철모 등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코너다.

흔히 박물관·미술관이라고 하면 ‘화이트 큐브’라 불리는 균질하고 매끈한 사각형 공간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파괴한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 전시실은 관람자에게 입체적인 시야를 갖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들쭉날쭉한 벽을 따라가면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관람 동선 때문에 유물은 보였다 안 보였다는 반복하며 관람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유물 중심의 전시에 집중하고 유물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최소화함으로써, 역사박물관에서 너무 많은 유물과 자료, 너무 긴 텍스트 설명을 따라가다가 지쳐 버리는 폐단을 방지하고 있다. 관람자가 더 알고 싶다면 사일로에 들어가 서랍을 열고 자료를 찾아보면 된다. 이는 관람자가 주도적으로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전시기법으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몰입 전시와 인터랙티브 전시

맨체스터관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몰입과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메인 홀에서 1일 4회 ‘빅픽처쇼’를 상영한다. 약 8미터 높이의 전시실 벽면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대형 영상 전시로 전쟁을 실감 나게 전달한다. 조명이 어두워지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주의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사방 벽면이 영상과 음향으로 가득 찬다. 포탄과 총소리, 라디오 방송, 연설, 함성에 더해 시 낭송도 곁들여진다. ‘빅픽처쇼’는 시각과 청각 매체의 종합적 활용, 매체와 매체 간의 연계적 사용을 통해 관람자에게 마치 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성을 부여한다(Arnold-de Simine 2013, 74). 앞서 지적했듯이 맨체스터관 전시실의 입체적인 공간 구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간 벽면에 영상을 투영했을 때 굴곡과 절단선이 생기면서 영상이 잘려 나가고 이어 붙여진 느낌을 자아내게 된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전쟁의 파괴적 위력과 도망갈 곳 없이 압도해 오는 공포를 간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Arnold-de Simine 2013, 114).

‘빅픽처쇼’의 주제는 ‘추모: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라크전까지 전쟁을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 ‘휴전: 전쟁은 어떻게 중단되고 종결되는가’, ‘알무타나 비가(街)의 대응: 바그다드 변화가 알무타나비가 폭격에 대한 증언’, ‘후방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기 보통 사람들의 일상’, ‘어린이와 전쟁: 피난민, 난민, 표적, 전투원이 된 소년소녀들’, ‘전쟁 무기: 20세기 전쟁 무기 생산과 사용, 그리고 무기의 공포’ 등이다. 2018년 7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는 1차대전 종전 100주년 특별전 ‘새로운 세계 만들기(Making a New World)’와 연계해 ‘빅픽처쇼’에 제국전쟁박물관 컬렉션 영상을 배경으로 맨체스터에서 활동하는 시인 토니 월쉬(Tony Walsh)의 시 ‘전쟁보다 강하게(Mightier Than War)’를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영상이 전시되고 있었다.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은 인터랙티브 전시기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주 전시실에 총 8개의 ‘액티브 스테이션’ 설치되어 있다. 인터랙티브 전시에서는 시청각뿐만 아니라 후각까지 동원한 체험 전시가 특히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1차대전 당시 서부전선의 참호 전시의 ‘액티브 스테이션’에는 참호에서 병사들을 괴롭혔던 구더기, 파리, 거미 등을 확대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코너가 있다. 또한 같은 전시에서는 참호에서 나는 시체, 염소 소독약, 화약, 담배, 젖은 옷, 화장실 등의 냄새를 맡아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이런 전시기법은 참호전의 실상을 후각을 활용해 생생하게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물관에 주로 쓰는 감각은 단연코 시각이다. 박물관에서 영상을 쓰는 경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활용하게 되지만 후각은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그런데 후각은 시각보다 직접적인 감각이다. 참호전을 겪었던 병사들의 회고에 따르면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냄새였다고 한다. 참호 안에 식사와 수면, 화장실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죽은 동료의 시신을 미처 매장하지 못해 며칠을 곁에 두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커다란 쥐가

돌아다니며 시신을 파먹고, 눈동자가 있던 부분이 움푹 패어 버린 시체의 눈에서 쥐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눈을 감아도 막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악취를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해 후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후각은 냄새를 구성하는 물질의 미립자가 콧속으로 침투해 만드는 감각이라는 점에서도 직접적이다. 몸은 물질을 향해 열려 있다. 몸의 투과성은 세계와 나를 매개한다. 외부 자극에 따라 내 몸에 들어오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같은 감각이 새로 내 안에 무언가를 만든다.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감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 공간과 내 몸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한 이유는 관람자의 몸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몸이기 때문이다. 오감을 활용한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의 인터랙티브 전시는 침투되고 열려 있는 몸, 변형 변화 가능한 몸,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앨레이모 2018)¹²⁾을 염두에 둔 참신한 전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전쟁박물관에서 평화 주장하기의 (불)가능성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벗어난 전쟁 기억 쓰기는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국전쟁박물관 런던관에는 탱크, 미사일, 폭격기 같은 무기와 반전 미술이 공존하고 있다. 영국 화가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의 1919년 작품 〈가스 중독(Gassed)〉은 독가스 공격에 눈이 먼 병사들이 서로 어깨를 빌려주며 이동하는 장면을 묘사한 대표적인 반전미술로 건립 초기에 수집한 작품이다. 제국전쟁박물관이 램버스로 이전한 이후에는 전쟁 미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정신병원이었던 장소성을 의식해 한층 더 전쟁의 광기라는 정신병을 비판하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Malvern 2000, 192).

12) 스테이시 앨레이모는 열린 몸과 몸의 투과성을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으로 개념화한다. 앨레이모는 열린 몸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입과 코와 피부로 들어오는 음식과 독성물질을 예로 들고, 극단적인 사례로 화학물질 복합과민증을 예로 든다. 앨레이모는 독성물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인간 활동의 여러 분야와 환경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영국과 영연방이 관련된 모든 전쟁과 분쟁에 ‘목격자(eyewitness)’가 되어줄 것을 관람자에게 요구한다. 전쟁은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문명사의 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애국주의의 광기로 전쟁을 찬양하거나, 혹은 반대로 평화에 대한 규범적·교훈적 주장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전쟁의 실상과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국전쟁박물관은 직접 전쟁을 체험했거나 간접 체험하는 관람자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empathy)할 수 있는 감수성을 길러내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국전쟁박물관 전시는 전쟁을 다루다 보니 증오와 적대를 드러내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전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다양한 특별전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2017년 3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린 〈민중의 힘: 평화를 위한 싸움(People Power: Fighting for Peace from the First World War to the Present)〉 특별전은 제국전쟁박물관에서 처음 열리는 평화운동에 관한 전시로 1차대전부터 현대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반핵운동, 참전반대운동을 다루었다. ‘참전용사들, 평화를 위해 다우닝가 앞에서 훈장을 내던지다’라는 영상 전시에서는 이라크 전쟁 영웅에서 평화운동가로 변모해 “나는 군사주의와 전쟁을 거부한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진정한 미래는 거리에 있다”고 외치는 모습을 담았다. 전시 도록에 소개된 데이비드 라더(David Larder)의 사례도 흥미롭다. 라더는 식민지전쟁에서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1952년 19세 나이에 마우마우(Mau Mau) 전쟁에 투입됐을 때 라더는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제대 후에는 그는 케냐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Smith 2017, 130-131). 라더는 2013년 6월 10일 『가디언』(Guardian)에 기고한 글에서 “마우마우 배상으로 역사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콘치(conchie)¹³⁾라는 오명을 이제야 벗게 됐다”며 기뻐했다(Larder 2013).

2019년 11월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의 특별전 주제는 예멘전쟁이었다. 〈위기 속의 예멘(Yemen: Inside a Crisis)〉전은 디지털 매체, 가격전쟁 자판기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예멘전쟁과 난민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

13) conchie는 conscientious objectors를 경멸조로 부르는 말이다. 마우마우 배상 재판에 관해서는 염운옥, 2015. “식민지 폭력 피해와 배상: 케냐 마우마우의 사례.” 『영국연구』 34호, 383-414를 참조.

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충분할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공감하라는 요구는 무리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의로움에 근거한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멘 내전과 위기 사태에 영국은 책임이 없는가? 영국 방위산업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이며 세계 최대의 군사박람회(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DSEI)가 2년에 한 번씩 런던 도크랜드에서 열린다. 유럽(NATO), 중동, 아프리카 국가 절반 이상이 영국제 무기를 구입하거나 영국을 통해 무기 구매한다. 영국은 방산 산업과 방산 교역에서 허브 국가인 셈이다. 영국 시민단체 ‘무기 거래 반대 캠페인(Campaign Against Arms Trade, CAAT)’과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가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영국은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중동 독재국가 지도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예멘전쟁에 죽음의 무기를 팔았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예멘전쟁에서 영국의 이중적 행태다. 한편으로는, 예멘에 2016년 1월 25일 긴급구호자금 8,500만 파운드(약 1,463억 원)를 지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멘을 공격하는 사우디에 무기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29억 5천만 파운드(약 5조 782억 원)에 달했다. 사우디의 오폭으로 예멘 민간인 6,400명 사망했다(장은교 2016). 가해자 사우디에 무기 수출하는 영국에서 열리는 예멘 위기 특별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정의로움에 바탕을 둔 공감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제국전쟁박물관 특별전 전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1차대전 중 반전 여론을 잠재우고 전쟁 동원과 협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제국전쟁박물관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아우라를 입히는 대신, 전쟁의 참상과 전쟁이 사람들의 일상에 끼친 영향을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세기 모든 전쟁에 ‘목격자’가 되어주기를 관람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제국전쟁박물관은 전쟁에 대한 인습적 규범적 교훈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둔 평화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다섯 곳의 제국전쟁박물관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곳, 런던관과 맨체스터관의 전시는 전쟁을 군사주의적이나 애국주의적 서사를 피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병사들의 재현에서 피부색 차별을 하는 것이나, 무기 산업은 비판하지 않고 난민에게 공감하자는 전시를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공허할 수 있다. 전쟁의 인간적 고통 앞에 공감을 강조하지만, 그 공감에 선택의 요소가 부여

된다면 그 공감은 선택적 공감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전쟁박물관 같은 전쟁박물관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에는 쉽게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재단할 수 없는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인다.

한편, 1994년 영국 브래드퍼드에는 평화박물관(The Peace Museum)¹⁴⁾이 문을 열었다. 브래드퍼드는 맨체스터와 셰필드 사이에 있는 소도시이다. 브래드퍼드 평화박물관이 내건 주장은 ‘우리는 양귀비꽃이 필요없다’이다. 빨간 양귀비꽃은 영국과 영연방에서 전몰자들을 상징한다. 매년 11월 11일이 1차 대전 종전기념일이 되면 전국에 양귀비꽃이 넘쳐난다. 특히 제국전쟁박물관 맨체스터관이 파사드를 활용해 선보이는 양귀비 전시는 매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평화박물관은 이런 양귀비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찬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희생의 영웅화에 반대 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 전쟁박물관에 관한 연구는 평화박물관과의 비교를 통해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쟁박물관과 평화박물관의 비교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염운옥은 경희대학교 글로벌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다. 인종주의와 몸의 역사, 역사박물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저는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돌베개, 2019)와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 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책세상, 2009)다.

14) <https://www.peacemuseum.org.uk/>

참고문헌

- Alaimo, Stacy 저, 윤준, 김종갑 역. 2018.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서울: 그린비.
- Clausewitz, Carl von 저, 류제승 역. 1998. 『전쟁론』 서울: 책세상.
- 도면희 외. 20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염운옥. 2015. “식민지 폭력 피해와 배상: 케냐 마우마우의 사례.” 『영국연구』 34호. 383-414.
- 염운옥. 2010. “채널 아일랜드와 나치 점령의 기억.” 『역사와 문화』 20호. 110-137.
- 염운옥. 2010. “나치 점령기 채널 아일랜드의 일상.” 『이화사학연구』 41호. 317-346.
- 이영석. 2022. 『나의 공부는 여기서 멈추지만』 서울: 푸른역사.
- 장은교. 2016. “예멘인 죽이는 무기 팔면서 예멘에 ‘구호금’ 생색내는 영국.” 『경향신문』(1월 28일).
- Arnold-de Simine, Silke. 2013. *Mediating Memory in the Museum: Trauma, Empathy, Nostalgi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Barrett, Michèle. 2007. “Subalterns at War: First World War Colonial Forces and the Politics of the Imperial War Graves Commission.” *Interventions* 9(3): 451-474.
- Barrett, Michèle. 2014. “‘White Graves’ and Natives: The Imperial War Graves Commission in East and West Africa, 1918-1939.” Nicolas Saunders and Paul Cornish. eds. *Bodies in Conflict: Corporeality, Materiality and Transformation*. London: Routledge.
- Candlin, Fiona, Toby Butler, and Jake Watts. 2022. *Stories From Small Museum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ooke, Steven and Lloyd Jenkins. 2001. “Discourses of Regeneration in Early Twentieth-Century Britain: from Bedlam to the Imperial War Museum.” *Area* 33: 382-390.

- Cornish, Paul. 2004. "'Sacred Relics': Objects in the Imperial War Museum 1917-39." Nicholas J. Saunders. eds. *Matters of Conflict: Material Culture, Memory and the First World Wa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35-50.
- Cundy, Alys. 2015. "Thresholds of Memory: Representing Function Through Space and Object at the Imperial War Museum, London, 1918-2014." *Museum History Journal* 8(2): 247-268.
- Damoussi, Joy. and Deborah Tout-Smith. Bart Ziino. eds. 2020. *Museums, History and the Intimate Experience of the Great War Love and Sorro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Imperial War Museum Act 192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Geo5/10-11/16/contents>.
- Kavanagh, Gaynor. 1988. "Museum as Memorial: The Origins of the Imperial War Museum."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23: 77-97.
- Koureas, Gabriel. 2018. "Selective Empathy in the Re-designed Imperial War Museum London: Heroes and Perpetrators." Clare Bielby and Jeffrey Stevenson Murer. eds. *Perpetrating Selves: Doing Violence, Performing Identit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99-221.
- Larder, David. "Pilloried as a 'Conchie' after Serving in Kenya, I Now Feel Vindicated." *The Guardian*. 10 Jun 2013.
- Lawson, Tom. 2013. "The Holocaust and Colonial Geocide at the Imperial War Museum." Caroline Sharples and Olaf Jensen. eds. *Britain and the Holocaust: Remembering and Representing War and Genocide*.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60-168.
- Loxham, Angela. 2015. "Shaped by Familiarity: Memory, Space and Materiality at Imperial War Museum North." *Museum and Society* 13(4): 522-538.
- Malvern, Sue. 2000. "War Memory and Museums: Art and Artefact in the Imperial War Museum." *History Workshop Journal* 49: 177-203.
- Mercer, Alyson. 2013. "The Changing Face of Exhibiting Women's Wartime

- Work at the Imperial War Museum.” *Women’s History Review* 22(2): 330-344.
- Nelson, Michael. 2005. “It May be History, But is It True?: The Imperial War Museum Conference.”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25: 141-146.
- Powell, Raymond. and Jithendran Kokkranikal. 2014. “From History to Reality: Engaging with Visitors in the Imperial War Museum (North).”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9(1): 36-49.
- Reeves, Audrey. 2018. “Auto-ethnography and the Study of Affect and Emotion in World Politics: Investigating Security Discourses at London’s Imperial War Museum.” Clément, Maéva and Eric Sangar. eds. *Researching Emo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thod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motional Tur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103-127.
- Richards, Anthony. 2004. “Archive Report: The Department of Documents at the Imperial War Museum.”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18(2): 103-112.
- Rogers, Simon, 2002. “There were no parades for us.” *The Guardian*, 6 Nov.<https://www.theguardian.com/uk/2002/nov/06/britishidentity.military>.
- Sassoon, Siegfried. 1918. “Suicide in the Trenches.” The First World War Poetry Digital Archive. <http://ww1lit.nsms.ox.ac.uk/ww1lit/collections/document/9855/9721>
- Shaw, Jonathan, Ben Squire Scholes, and Christopher Thurgood. 2008. “Space and Place: Imperial War Museum North.”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1(2): 227-231.
- Smith, Lyn. 2017. *People Power: Fighting for Peace from the First World War to the Present*. London: Thames & Hudson.
- Sooke, Alastair. 2014. “The New-look Imperial War Museum: Affecting and Poignant.” *The Telegraph*, 16 July.
- Ward, Candace. 1997. *World War One British Poets: Brooke, Owen, Sassoon, Rosenberg and Others*. Mineola,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Wight, C. and J. Lennon. 2005. "Towards an Understanding of Visitor Perceptions of 'Dark' Attractions: The Case of the Imperial War Museum of the North, Mancheste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Research* 2(2): 105-122.

Abstract

The Paradox of a War Museum for Peace: Imperial War Museums

Yeom, Woonok*

This paper deals with the exhibition narrative of Imperial War Museum London and Imperial War Museum North. The Imperial War Museums was established during the first World War to cope with the total war. For calming anti-war opinion and mobilizing the British nations and subject of British empire, government started systematic collecting of war objects and opened Imperial War Museum at Crystal Palace in 1919. Instead of creating an aura of noble sacrifice for the nation, the Imperial War Museum takes a multifaceted approach to showing the horrors of war and its impact on people's daily experiences. Asking viewers to be 'eyewitnesses' to every war and conflict in the 20th century, the Imperial War Museum conveys a meaning of peace that goes beyond conventional normative lessons about war and is based on empathy for the suffering of others. I appreciate that the Imperial War Museum makes an effort to avoid militaristic or patriotic narratives. However, it can be hypocritical or hollow to show racial discrimination in a representation of colonial soldiers at war, or to have an exhibition that asks us to empathize with refugees while not criticizing the arms industry. If empathy is emphasized in the face of the human suffering of war, but that empathy is limited to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Global History and Culture, Kyung Hee University, woyeom@hanmail.net

selective empathy. In that sense, we can only evaluate that the idea of peace in a war museum such as the Imperial War Museum has both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Key Words: War Museum, Imperial War Museum London, Imperial War Museum North, The First World War, Peace, Empathy

논문투고일: 2023. 04. 02.

논문심사일: 2023. 04. 12.

게재확정일: 2023. 04. 26.